

한국 IT기업들의 지식의 공유 및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원희⁰, 최호성*, 정진영**

⁰경남정보대학교 경영계열

*한국산학연합회

**대전보건대학교 바이오정보과

e-mail: leewh@eagle.kit.ac.kr⁰

Study on the Effects of Knowledge Sharing in the IT Industry of South Korea

Won-hee lee⁰, Ho-Sung Choi*, Jin-Young Jung**

⁰Sub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Dept. Bio Informati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 요약 ●

세계경제는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로 진입했다 할 수 있다. 즉 지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경영활동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지식경영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IT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조직의 특성, 관계자의 특성이 지식의 공유 및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요인들이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작게는 특정 프로젝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크게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지식기반경영(knowledge-based management), 지식획득(knowledge acquisition), 지식이전(knowledge transfer), 지식공유 및 활용(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I. Introduction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빠른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동태적이고 복잡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1][2].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에 있어서 지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4][5][6][7].

많은 문헌들은 지금이 지식경영시대라고 말한다. 지식경영시대에서는 지식을 최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지식은 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속적인 우수성을 보유하는데 핵심자산이다[8]. 최근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 지식경영이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 간 경쟁이 점점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국제경영과 관련한 많은 기존연구들에서는 기업을 하나의 지식의 집합체로 보고, 기업이 보유한 자원 중 지식을 근거로 한 자원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차별성과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고 하였다[5].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경영에 대한 연구들은 조직역량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창출 및 축적, 이전 및 공유, 활용 및 학습 등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9]. 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10][11]. 따라서 기업들은 경쟁사들에 비해 더 빨리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 끊임없는 지식탐구(knowledge seeking)와 지식창출(knowledge creation)을 하는 조직이며, 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획득은 기업의 핵심전략과제로 간주된다. 이렇듯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12][13]. 지식경영에서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온 지식학습, 지식이전 및 공유, 지식창출 등 연구 중에서도 특히 지식자산의 전달 및 확산을 통해 기업핵심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식이전 및 공유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8].

이는 지식이전 및 공유가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관련 자원을 획득하고 축적하여 나아가 이를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9]. 지금까지 지식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파트너 간 지식이전과 제조산업 및 첨단 IT산업에서의 지식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의 지식이전 및 공유,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건설사업 프로젝트는 본사에서의 사내 지식이전 또는 지식공유와 달리 이전지식의 전수자와 수혜자가 사업 프로젝트 참여자 이므로 지식이전으로 인한 지식수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업현장근무환경에 오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수용능력과 학습능력, 본사의 지원부서 및 프로젝트참여기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순수 기업 내 지식이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 및 사업프로젝트 참여기간 어떤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전하여야 하며, 지식이전 및 공유,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하여 규명해 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II. Research Background

오늘날 지식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경험이나 발견방법, 정열, 신경결합에 근거한 개인의 통찰, 판단, 혁신을 의미 한다.

지식경영은 지식의 경영이라는 측면과 지식의 관리라는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식경영이란 경영전반의 패러다임으로 조직, 구성원, 문화, 인프라 등 기업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작용원리를 말한다.

[14]에 따르면, 지식은 “이해의 맥락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다방면적 근거에 입각한 지식의 정의는 개인, 그룹, 조직 차원에 암묵적(tacit, implicit), 형식적(explicit), 조직적(systemic)지식 등 몇 가지 지식유형이 있음을 강조 한다 [9][15][16][17]

[18]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인 “Knowing”에 강조를 두면서 지식을 깨달아 가는 과정과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전달하고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Nonaka(1994) 역시 지식의 창출과정에서 개인의 지식이 상호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집단의 지식으로, 집단의 지식이 집단과 개인, 집단과 집단, 집단과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성원들의 몰입과 사회화 과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이 사회적 산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지식이나 기술이전 능력을 성공적으로 이용(exploitation)하려면 이러한 능력을 흡수할 능력을 기업내에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기업 간 성과 차이의 원인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기술의 본질과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통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지식정의와 지식이전 및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IT기업들의 지식이전과

공유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Research Hypotheses

본 연구는 국내 IT기업 프로젝트 조직 내 지식이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프로젝트 참여자의 특성요인 및 프로젝트 조직특성 요인, 상호 관계적 특성요인, 현지 환경적 특성요인이 지식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따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구축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그 영향요인으로 첫째, 프로젝트 참여자 특성요인을 전수자 동기 및 의지, 수혜자 동기 및 의지, 참여기간 계약준수, 참여자의 흡수능력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요인을 경영자출성, 조직문화 유사성으로 분류하였고 셋째, 관계적 특성요인을 의사소통의 효율성, 신뢰성으로 분류하였고 넷째, 경영환경 특성요인을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보상정도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기설은 다음과 같다.

- H1: 프로젝트 참여자 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2: 프로젝트 조직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3: 관계적 특성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4: 경영환경 특성은 관심은 지식공유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H5: 지식공유 및 활용은 프로젝트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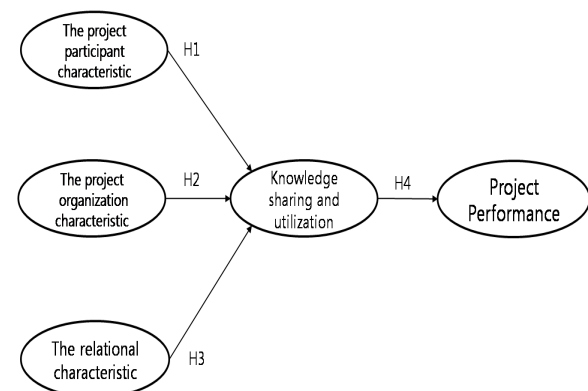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Structure

IV. Results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분석결과, 제시한 모든 문항(items)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Factor Loadings: FL>0.6을 상회하였으며 Cronbach's α (>0.7) 값도 0.721에서 0.952사이로 나타나 convergent validity and the discriminant validity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ank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Before	After	
Project participant characteristics	8	8	0.721
Project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8	8	0.807
Relational characteristics	8	8	0.952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9	9	0.901
Project performance	7	7	0.733

2. Statistical for Research Model

구조 방정식 모델링 (SEM)의 결과는 $\chi^2=77.122$ (d.f=6), $p=0.000$, $\chi^2/d.f=12.8537$, $GFI = 0.832$, $RMR=0.054$, $NFI=0.900$, $AGFI=0.851$, $CFI=0.8571$ 이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모델의 적합도를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tatistical tests for Research model

Hypot hesis	Path	T-v alue	P-v alue	Hypot hesis Supp ort
H1	Project participants→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3.447	0.000	**
H2	Projects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4.542	0.000	**
H3	Relational characteristics →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0.749	0.042	*
H4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project performance	1.115	0.044	*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연구모형 분석결과 모든 가설이 채택됨.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의 IT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이 본사와 자사의 지식공유 및 활용이 이루어지며 또한 지식공유 및 활용이 프로젝트 성과에는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증연구 이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참여자와 프로젝트 조직특성의 경우 기업의 지식공유 및 활용에 있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공유 및 활용과 관계적 특성의 경우 가설 H2, H3과 같이 높은 영향은 아니었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업에서의 경쟁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지식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쟁적인 무기라고 하였으며 오늘날은 바로 이러한 지식경영의 시대라고 하였다 (Sharon and Kelly 2006). 특히 IT관련 기업들의 경우 지식경영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며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기업들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통계분석자료, Bigdata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또한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T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IT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타 업종 보다 원활히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공유 및 활용을 통해 기업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IT기업들의 경우 언급한 내용처럼 IT관련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 하여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Senge,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Double day Currency,1990).

[2] J. March,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organizational learning," Organizational Science, vol. 2, pp. 71-87, 1991.

[3] Huber, "Organizational Learning: The Contributing Processes and the Literatures," Organization Science, vol. 2, pp. 88-115, 1991.

[4] K. Conner, and C. K. Prahalad, "The Resource-based Theory of the Firm : knowledge vs. Opportunism," Organization Science, vol. 7, pp. 477-501, 1996.

[5] R. M. Grant, "Toward a Knowledg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7, pp. 109-122, 1996.

[6] J. C. Spender, "Competitive Advantage form Tacit Knowledge? Unapacking the Concep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In Moingeon, B., Edmondson, A. (eds),"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ompetitive Advantage,

- Sage, London, pp. 56-71, 1996.
- [7] R. Mitchell, and S. Nicholas, "Knowledge Creation Group: The Value of Cognitive Diversity, Transactive Memory, and open-mindedness Norms," *The Electronic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vol. 4, pp. 67-74, 2006.
- [8] A. Hilmi, S. Iman, S. Kadarsh, and G. Rajesri,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tecedent and Their Impact on the Individual Innovation Capability," *Journal of applied Sciences Research*, vol. 5, pp. 2238-2246, 2009.
- [9] I. Nonaka, and H. Takeuchi, "Knowledge and Management: Chapter 2 of Ikujiro Nonaka and Hirotaka Takeuchi, *The Knowledge 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55. 1995.
- [10] I. Nonaka,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vol. 5, pp. 14-37, 1994.
- [11] W. Sharon, and H. Kelly, "A multi-Theoretical Model of Knowledge Transfer in Organizations," *Determinants of Knowledge Contribution and Knowledge Reuse*, pp. 141, 2006.
- [12] Hedlund, "complex adaptive system of organization," pp. 144, 1994.
- [13] Inkpen and Diur, "Knowledge Management Process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Organization Science*, vol. 9, pp. 454-465, 1998.
- [14] A. Brooking, "Corporate Memories, Strategies for Knowledge Management," Thompson Business press, London, 1999.
- [15] T. Davenport, and L. Prusak, "Working Knowledg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2000.
- [16] N. Dixon, "Common Knowledge: How Companies Thrive by Sharing What They Know,"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2002.
- [17] M. Polanyi, "Personal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Press, 1958.
- [18] Blacker, "Knowledge, knowledge work and organizations," an overview and interpretation, *Organ. Stud.* 16 (1995), pp. 1021-1046, 1995.